

생활과학대학(전 가정대학) 50년의 기억과 발자취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명예교수 이기춘

“오래된 것이 아름답다. 거기에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기 때문이다. 그 흔적에서 지난날의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다.”는 어떤 분의 글이 떠오르면서 생활과학대학이 50년 세월의 흔적을 채우게 된 것에 감회가 새로워진다.

1960년대 당시 대한민국의 남성 보수 엘리트가 주류였던 서울대학교에서 사범대학에 소속되어 있었고, 교수와 학생 모두가 여성이었던 유일한 학과, ‘가정교육학과’가 하나의 단과대학인 ‘가정대학’으로 독립하기까지 얼마나 힘든 과정이고 우여곡절이 많았을까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기로 하겠다.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하시고 가정교육학과 교수 면회사절까지 하셨던 총장님이 계셨는가 하면 뒤에서 도움을 주셨던 본부 보직교수(지금은 명예교수)도 계셨음을 이 일을 이끌어 가신 장명옥 스승님께서 알려 주시면서, 그 교수님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말라는 말씀도 해 주셨다.

오랜 세월이 흐른 뒤 그 교수님을 뵈 기회가 되어 장 교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감사하다는 인사드렸더니 잊고 있었던 일인데 그렇게 옛날 일을 전해 받고 감사하는 걸 보니 여성이 남성보다 의리가 깊은 것 같다는 덕담으로 받으셔서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금은 모두 작고하신 당시 가정교육학과 4명의 교수님들(장명옥, 현기춘, 이혜수, 임원자)께서 이 일을 위해 무더운 여름 방학 중 매일 출근하셔서 땀 흘리며 애쓰셨던 모습이 떠오른다. 나는 그때 조교로 근무했으며, 서류 작성을 담당하고 스승님들의 일을 도우면서 가정대학이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에 동참했다.

1968년 12월 말 천신만고 끝에 가정대학 설립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다음해인 1969년 3월부터 3개 학과인 ‘가정관리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가 신입생 모집을 시작하면서 ‘가정대학(College of Home Economics)’이 출범하였다.

1945년에 시작해서 20여년의 전통을 가지고 우수한 졸업생들을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교사로 배출해 왔던 ‘가정교육학과’가 든든한 기반으로 존재해 왔기에 가정대학으로의 확대 발전이 가능했을 것이다.

초대 학장으로 임명되신 장명옥 교수님 주도 하에 1969년 5월에 가정대학 창립기념식을 거행할 때 여성교육에 관심이 많으셔서 대학설립을 뒤에서 조용히 지지해 주셨던 육영수 여사의 참석이 눈길을 끌었다. 그날 많은 축하를 받고 기쁘기도 했지만 곧 고민이 찾아왔다. 별

도의 건물 없이 1개 학과의 시설로 단과대학을 시작한 가정대학 초기에 당연히 공간, 시설, 예산 등의 부족으로 생각보다 어려움이 컸다. 무엇보다도 부푼 꿈을 안고 입학한 가정대학 1회 입학생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모든 것이 부족하고 시설이 열악해서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재학생 90명의 학생으로 출발한 대학에서 그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은 1학년 재학생끼리의 동아리 활동이어서 과반수가 참여한 가정대 합창단을 교수들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밀어주었다. 여성합창단으로 열심히 연습하고 공연도 하는 등 어느 정도 수준에 왔을 때 제1회 전국대학생 합창공연대회가 있다는 공문을 받고 여성합창으로 출전하기로 뜻을 모았고, 공과대학 남학생들의 자발적 지원을 받아 ‘혼성합창단’도 구성해서 두 가지 다 참가하였다. 여기에서 혼성합창으로 서강대와 공동 최우수상을 받았던 것은 잊을 수 없는 기쁜 추억이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해 종합화된 후 가정대학 합창단이 주축이 되어 전교적인 규모의 ‘서울대학교 혼성합창단’을 창단하고 초대 단장으로 가정대학 학생이 선출되고 본인이 지도교수를 맡게 되었다. 학생들이 단결하여 밤 늦게까지 열정적으로 연습하는 과정과 무대 위에서의 성공적인 공연을 보며 늘 감동이 컸다. 그 당시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끈끈한 결속력으로 뭉쳤던 건전한 동아리의 활동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삭막한 관악캠퍼스에서 외롭던 내 젊은 날의 교수생활에 위로가 되었던 흔적으로 남아 있다.

단원들은 졸업해서 사회에 진출한 후에도 ‘OB서울대학교 혼성합창단’을 창설하여 매년 공연을 하고 있으며, 그 공연에 초대받아 가서 옛날의 단원들과 재회하는 기쁨을 맛보기도 했다. 지금까지도 꾸준히 합창 공연을 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도 중추적인 활동을 하면서 모교에 대학발전기금을 모아서 내는 등 후학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일도 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1971년 내가 교수대열에 동참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유신을 반대하는 학생들의 데모가 시작되었고, 서울대학교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고 종합화한 1970년대 중반 이후 1980년대까지도 대학이 극도로 불안정하고 교정에 최루탄이 거의 매일 터지면서 휴교를 하는 등, 학생지도가 의무였던 교수들의 마음이 검은 구름에 쌓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참 힘들었던 나날이 계속되었다. 가정대학이 입주했던 13동 3층과 4층 건물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연구실 창문을 통해 최루탄가스를 맞아가며 데모하던 학생들이 뛰어다니다가 사복경찰에게 잡혀 끌려가는 모습을 거의 매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슬픔과 아픔을 겪었던 날들이 떠오른다.

1970년대 후반에는 4명으로 시작한 가정대학 교수도 충원되어 12명이 되었다. 당시에는 전공분야에서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교재도 변변히 없었고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전혀 안 되어 있었으며 학생지도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된 과목의 강의



〈그림 1〉
전 가정대학 창립 경축식
(1969. 5. 14.)

준비와 매주 9시간 강의하기에도 벅찼고 스트레스가 쌓여 갔다. 국내를 벗어나 외국으로 가서 마음껏 연구하며 공부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길을 열심히 찾아보았다. 그 시절에는 국민이 외국으로 나가는 일이 자유롭지 않을 뿐 아니라 공무원 신분인 서울대학교 교수로서는 모든 것이 까다롭게 묶여 있어서 자비로 외국 나가는 것조차도 불가능했다.

거의 포기 수준에 있을 때 뜻밖에도 1977년 가을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하는 획기적인 ‘국비해외파견 연구교수’ 선발제도가 처음으로 나타났다. 많은 교수들이 관심을 가졌던 만큼 높은 경쟁 속에서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자가 되는 1차 추천과 2차 외국어시험을 거쳐서 최종 합격자가 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동안 새벽기도 나가면서 열심히 기도하며 구하고 찾던 중 정말로 뜻밖에 이루어진 일이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를 거쳐 다음해 여름 4살과 7살의 두 아이를 포함한 가족을 남겨두고 간절히 원했던 미국으로 떠났다.

당시 미국은 교육개혁이라는 시대적 변화 속에서 단과대학과 학과의 명칭이 바뀌고 조직의 통폐합이 이루어졌거나 이루는 과정에 있는 대학들이 많았다. 코넬대학교의 경우 College of Home Economics는 College of Human Ecology로 이미 바뀌었으며, 다른 여러 주립대학교가 또 다른 명칭으로 변경했거나 바꾸기 위한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었다. 학과의 명칭도 소비자 경제학 주거학과(Dept. of Consumer Economics & Housing) 또는 소비자 가족학과(Dept. of Consumer & Family Science), 가족환경학과(Family Environment) 등으로 다양하게 바뀌어 있었다. 이름을 고치고 조직을 개편한다고 해서 반드시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지만 시대 변화에 따른 학문의 내용과 올바른 이미지를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편향되고 잘못된 선입관을 갖게 하는 명칭은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당시 나의 소신이었다.

미국에서 머무는 동안 전통성이 강한 Iowa State University와 개혁성이 강한 Cornell

University 두 대학의 학과 조직과 구조, 명칭과 커리큘럼, 그리고 강점과 약점 등을 파악하고, 연구 분야인 소비자 교육을 집중적으로 탐구하였다. 국비해외파견 연구교수제도는 그 어느 때보다 파격적인 생활비와 연구비를 공급해 주어서 마음껏 서적과 논문, 복사 자료를 갖출 수 있었고 전국에서 열리는 관심 있는 학회에도 모두 참석하고 여러 대학의 교수들도 만나 의견을 들으면서 귀국 후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구상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 혜택을 준 조국에 대해서는 지금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내가 무슨 일을 먼저 어떻게 할까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귀국한 지 얼마 안 되어 10.26사태와 또 이어서 12.12사태가 발생하는 등 나라가 안정되지 못하고 1980년대의 광주사태 등 불행한 상황이 이어져서 대학과 교수의 학문 활동도 한동안 위축되었다. 내가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학과를 개혁하는 일은 명칭 변경을 하고 교과과정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다. 학회에서 발표할 기회가 있어서 미국 대학의 구조 조정과 명칭 변경 등 변화의 동향, 그리고 우리도 명칭 변경을 통해 미래의 구조조정에 미리 대비해야 함을 제안하였는데 일부 교수들이 호응했으나 반대 의견도 강했다. 명칭 변경을 하면 결국은 가정학이 무너진다는 것이 이유였다. 서울대학교에서도 학과 명칭 변경이 처음에는 합의가 안 되고 추진하기 어려워 일단은 보류하고 대학원 교과과정에 새로운 과목으로 ‘소비자 경제(Consumer Economics)’를 개설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그후 몇 년간은 교과과정을 통해 소비자 분야를 강화하고 연구논문과 대학원 학위논문의 학회 구두발표, 학회지 게재로 서서히 소비자분야에 대한 학자들의 관심이 조성되었고 가정관리학과 명칭 변경안을 만들어 서울대학교가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여러 학문 분야(가족, 아동, 소비자 관리분야)가 혼합되어 하나의 학과를 이루었던 터라 단일 명칭을 채택하는 데 진통이 심했고 많은 토론과 회의를 통해서 결국은 학과교수회의에서 투표로 ‘소비자아동학과(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로 결정했다. 이 후에도 변경안이 본부의 교무처, 기획위원회, 학장회의 등 여러 단계의 회의에서 논의되고 통과하기까지 많은 설득과정과 노력이 필요했다.

소비자아동학과 명칭에 대한 반응이 다양했는데 신선하고 전문성이 있어 보인다고 크게 찬성하는 의견과 소비자학과 아동학 두 이질적인 학문분야가 명칭에 반영되어 있어서 학과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고 생소하게 느껴진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대체로 학생들 취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고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높았다. 모든 행정적 절차와 과정을 통과하고 드디어 1988년 명칭이 바뀌었을 때를 회상하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해진다.

소비자아동학과 입시 지원자에 남학생이 여러 명 있었고 처음으로 88학번이 되는 한 명의 남학생이 합격해서 뉴스거리가 되었다. 그후 학과 전체 경쟁률과 학과 커트라인이 점차 높아졌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졸업생들이 기업, 금융기관 및 아동교육 분야 등에서 취업이 활성화

화되고 좋은 평가를 받아 홍보가 많이 되자, 학생들의 사기가 높아진 점으로 보아서도 학과 명칭 변경은 성공 사례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비해 가정대학 명칭 변경은 진전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다. 전 교수의 합의로 하려했으나 교수들의 전공분야, 세대, 성별 등에 따라서 호응, 중립, 반대로 갈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정학 1세대 교수들(나의 스승님들)의 경우 가정대학 명칭에 대한 애정과 향수가 컸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쉽게 수용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보였다. 때를 기다려야 했지만 그 상황에 순응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많은 고뇌가 있었으나 다가오는 2천년 새 시대, 그리고 가속도로 진행되는 사회 변화를 예상할 때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변혁이 필수라고 믿었기에 반대 의견이나 비판은 크게 두렵지 않았다. 4년간 확장직을 수행하는 기간 동안 매년 하계와 동계 두 번씩 개최하는 가정대 교수학사협의회에 대학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상정했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동의가 형성되기까지 몇 년의 세월이 흘렀다. 한편 농과대학에 오랜 기간 소속되어 있었던 농가정학과와 가정대학이 통합하는 안도 협의되기 시작했는데 모든 전공 분야가 중복되어 있었던 이 두 조직의 통합은 거의 필연으로 보였다.

1990년대 중반에 농과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그 이전부터 논의되었던 농가정학과와 가정대의 통합에 대해 좀 더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양측에서 일부 소수 교수의 부정적인 태도도 있었고 농과대학 내 타과 교수의 일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농가정학과 교수들이 통합 결단을 먼저 내리면서, 그때까지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농대의 관악캠퍼스 이전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농가정학과와 가정대학의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가정대학 교수회의에서도 다수결로 대학명칭을 ‘생활과학대학(College of Human Ecology)’으로 변경시키는 안을 통과시켰고, 가정대학 기존의 3개 학과를 4개 학과로 새롭게 재편성하는 안이 의결되었고, 이 안이 농가정학과에서도 수용되고, 본부에서도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다.

1997년부터 생활과학대학의 인문계인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와, 자연계인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로 4개 학과 신입생을 뽑아, 완전히 새로운 하나의 단과대학 모습을 갖추었다.

지난 세월의 발자취를 돌아보면 생활과학대학은 가정대학으로 처음 태어날 때부터 다른 단과대학에 비해 작은 규모의 대학으로서 설움도 많았었다. 미니대학이라는 불림도 있었고, 대학교육의 변혁에 부딪힐 때마다 그 존재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웠다. 서울대학교 전체가 관악캠퍼스로 이전하기 전 서울대학교종합계획안이 구상될 때, 그 이후 자의반 타의반의 교육개혁으로 서울대학교가 구조 변화를 꾀할 때마다, 작은 대학인 음악대학, 미술대학과

함께, 가정대학이 도마에 올랐던 것을 기억한다.

위기에 사람들이 뭉치는 습성 때문인지 몰라도 생활과학대학은 항상 교수들의 결속력이 강했고 작은 일에도 협력이 잘 되며, 연구는 물론이고 대학연구실을 지키고 교육과 학생지도에도 최선을 다하는 좋은 전통이 이어지고 있었다. 교수의 수가 적어서 한 명의 교수가 큰 대학 열 교수의 몫은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교수로서 살았던 것 같다.

오랜 세월 동안 매년 개최하는 소비자학과, 아동가족학과, 식품영양학과 학부학생 심포지엄행사는 학부 3학년이 되어 자발적으로 심포티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학과교수가 지도교수 역할을 1명씩 매년 돌아가며 담당하여 지도함으로써 완성도를 높여서 문화관 같은 큰 장소에서 개최해 오고 있다. 의류학과는 3학년 전원이 참여하는 패션연구발표회가 이에 해당된다. 교수들의 헌신적인 지도와 희생적인 자세가 없었으면 아마도 벌써 중단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 행사는 수십 년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추억을 생활과학대학 학생들과 우리 교수들 모두에게도 남겨 주고 있다.

생활과학대학 교수들이 뭉쳐서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성사시킨 또 하나의 업적은 꿈에도 그리던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고 이사해서 학생들에게 자부심을 선물해 준 것이다. 생활과학대학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마지막까지 공간이 가장 비좁고 낡은 13동 건물 3, 4층에 위치했었다. 우리 교수들은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었지만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로서는 낡은 건물과 협소한 공간, 학생들이 머무를 휴게실 하나 없는 열악한 시설에 너무나 실망스러워 했다. 심지어는 이 때문에 전과하는 학생들도 있었고 이 건물에 들어오는 것이 싫어서 건물과 시설이 훌륭한 타 단과대학에 가서 과목을 수강한다고도 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참으로 마음이 아프고 학생들에게 미안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도 새로운 건물을 마련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기고 역대 학장들과 교수들은 한마음이 되어 움직였다. 모든 교수들이 기회만 있으면 역대 총장님과 본부 관계자들에게 진심을 다해 실상을 전하고 열악한 건물과 시설을 보여 드리면서 최선을 다했다. “지성이면 감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만 우리에게 해당되는 새로운 건물의 건축소식을 듣고 기뻐한 이후로도 건축이 쉽게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관악캠퍼스에서도 손꼽히는 아름답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과학대학 건물이 완성되기까지 부지선정 문제, 예산확보 문제, 건물설계 문제, 이사와 내부 인테리어 문제에 이르기까지 생활과학대학 역대 학장님들의 수고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명예교수이신 당시의 총장님과 서울대학교의 다른 전공 교수님의 협조가 컸던 데 대해 이 기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다.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며 생활에 관련된 응용학문, 융합학문으로서 생활과학은 시대정신에 발맞추어 때로는 앞서서 고민하며 혁신을 도모했고

발전해 왔다. 일찍이 소비자아동학과로의 학과 명칭 변경 과정을 거쳐서 소비자학과와 아동가족학과를 신설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고 생활과학대학으로의 명칭 변경은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 관련 학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특히 소비자학과 졸업생들의 기업 등 사회 진출이 활발해서 지명도가 높아짐으로 입학 지원률, 합격선 등이 급상승하였다. 생활과학은 대내외적으로도 생활 관련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정부기관이나 산업체에서 위탁한 연구과제가 많아지고 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과 교류와 협동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부속 어린이집은 설립 당시부터 아동가족학과 교수가 적극적으로 맡아 하면서 교직원 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지역사회를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급식센터 등을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생활과학대학에는 패션산업 최고경영자과정이 일찍이 개설되었고, 이후 식품영양산업 CEO과정, 웰에이징 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을 운영하면서 사회와의 직접적인 교류와 인재를 재교육하는 데도 큰 몫을 하고 있다.

생활과학대학 교수들이 적은 수로 강의와 연구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면서 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은 남다른 분위기가 이 대학 안에 전통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관악캠퍼스로 이전한 직후 통근버스로 출퇴근하던 시절에 우리 여교수들은 도시락을 가져와서 점심식사를 교수회의실에서 했고 식사 후에는 교내식당에서 식사하신 두 분의 남성 교수님도 오셔서 함께 커피 마시고 대화하는 일을 거의 매일 반복했었고, 매달 정기 교수회를 빠짐없이 해 왔기 때문에 친밀한 분위기에서 학장회의에서 있었던 일이나 교내외의 모든 일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기에, 평교수도 보직교수나 다름없이 모든 교수가 대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컸고 참여도가 높았다.

교수 수도 점차로 증가하여 30명을 넘어섰다. 이미 오래 전부터 교수들의 학문연구와 학회 활동, 연구프로젝트 같은 일이 많아지면서 자주 모이기가 어려워지자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수요세미나’를 통해 교수회의실에서 점심시간에 김밥을 함께 먹으며 동료 교수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발표를 듣거나 타전공 교수와 외부 인사를 초빙해서 관심있는 주제에 관해 자유롭게 의견 교환하며 열린 자세를 지향해 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신입 교수들에게는 교수의 책임과 역할 및 소속 대학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 데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것이다.

명예교수들에 대한 배려도 각별해서 아주 오래 전부터 스승의 날 주간이 되면 생활과학대학 교수회의실로 초청해서 현직 교수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명예교수들이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후배 교수들에게 한 마디씩 덕담을 해 주는 행사가 해마다 있어서 선후배교수 간, 스승과 제자 간의 관계를 따뜻하게 이어 가고 있다. 사계절이 너무나 아름다운 캠퍼스에 가끔

〈그림 2〉
생활과학대학 전경



씩 올 때면 기억의 흔적을 따라 옛날이 회상되면서 마음 따뜻해지고 설레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생활과학대학 동문들의 대학 사랑을 빠뜨릴 수 없다. 생활과학대학에서는 오래 전부터 동문들을 졸업 20주년, 30주년, 40주년, 50주년 되는 해에 초청해서 축하해 주는 홈커밍 행사를 열고 있다. 이 자리에는 명예교수들과 동문회 역대 회장을 초대하여 생활과학대학의 발전 현황을 보고하고 현직 교수, 명예교수를 개별적으로 소개하여 옛날 학생과 스승의 만남이 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새로운 건물을 돌아보면서 아담하고 정겨운 건물에 속한 뒷 정원으로 내려가면 맛있는 점심이 차려져 있고 축하공연이 기다린다. 생활과학대학의 교수 중 취미로 피아노 연주를 전공자 못지않게 연주할 수 있는 남성교수의 피아노 연주와, 음악동아리, 댄스동아리의 공연을 보며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에서 캠퍼스의 가을을 즐긴 후 마지막에는 초청받은 동문들의 졸업기별 모임을 1층 홀에서 갖게 해 주고 있다. 동문들이 홈커밍에 대한 답례로서 기별로 발전기금을 모아 모교에 장학금을 기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증한 기금도 수익에 달한다.

작지만 강한 단과대학, 그러나 우리가 처한 상황과 위치가 높지 않음을 알아 겸손한 대학, 그래서 또한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는 대학이 생활과학대학이라고 말하고 싶다. 50년의 역사를 품고 우아한 모습으로 우뚝 선 생활과학대학이 밝고 환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 더욱 활짝 열려 진실한 인성과 참된 지혜를 갖춘 능력 있는 인재를 키워 사회공헌에도 뒤지지 않으며, 앞으로 더 놀라운 새 역사를 써 나가면서 뚜렷한 발자취와 흔적이 남겨지기를 기대해 본다.

지난 세월 동안 생활과학대학이 이만큼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고, 지켜봐 주시면서 격려해 주신 타과 명예교수님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생활과학대학 50년의 기억과 발자취’를 마치고자 한다.